

HONG — TI ART CENTER

2019 홍티아트센터 작가자료집

ARTIST

WORKS

2019

ARTIST

CONTENTS

4 2019 홍티아트센터 입주작가 릴레이 개인전
'이토록 찬란한 돌연변이'

입주작가

8 이정동
24 정주희
38 요건 던호펜
52 김등용
68 최정은
82 오우마
98 이장욱

112 작가약력

4 2019 Hong-ti Art Center Relay Exhibition
'This shining mutant'

Resident Artists

8 Lee Jung dong
24 Jeong Joo Hee
38 Jürgen Dünhofen
52 Kim Deung Yong
68 Choi Jung Eun
82 Ouma
98 Lee Jang Wook

112 Artist's Profile

이토록 찬란한 돌연변이


2019.5.2. — 11.27.

우리 사회의 돌연변이는 인간 자아의 핵심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유전체는 상반되는 가닥이 짝이 되고, 과거와 미래를 섞고, 시간 속 기억들을 대비시키며 상반되는 힘들 속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일지 모른다. 돌연변이가 없는 완벽히 이상적인 유전자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정상적인' 사회를 상상해보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지겠지만 정체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뇌의 기능은 향상될지도 모르지만 감수성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성공에 따른 물질적 보상은 따르겠지만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의 의미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돌연변이.

눈에 거슬린다. 지금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자리들이다. 결국은 그렇게 웃음거리이며 외면의 대상이 될 것인가? 하지만 알고 보면 당신이 그토록 열광하는 이 시대의 슈퍼히어로들도 모두 돌연변이들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도 돌연변이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귀한 존재가 아닌가. 예측 불가능한 유전자라는 운명의 조합이 만들어낸 이 무한의 상상력에 자유를 부여하자.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이토록 찬란한 돌연변이다.



This shining mutant

2019.5.2. – 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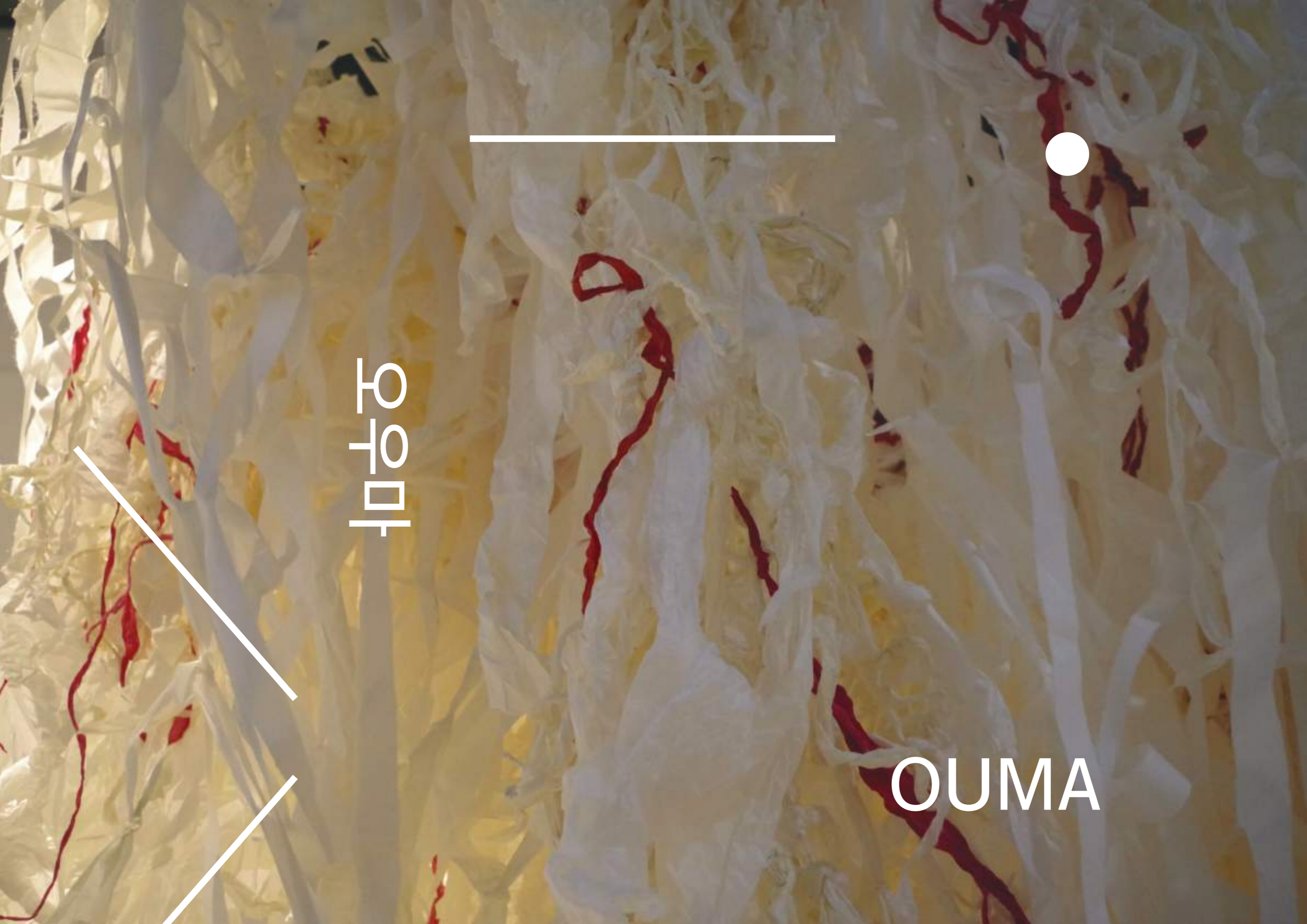
Mutants in our life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key point of human conscious, Our genetics' thread becomes a mate, mixing past and present, and maintains in between the contrary forces, reflecting memories of time. This might be the most human part of all we have.

Let's imagine a 'normal' society with the combination of perfectly idealistic genetics. A perfect human in terms of body and mind will be shaped but it's identity might be gone. Brain's function might be enhanced but sentiment will be gone. There will be material prize but the meaning of growth through trials and error might disappear.

Mutant.

It lingers in your sight. It is not a suitable position at current times. Will they just be subjected to laughs and ignorance? But maybe the superheroes you cheer so much is a mutant of our time. Maybe you and I could be a mutant. Then that means we are the most special and one and only beings. Let's give freedom to our infinite imagination which will be made my unexpected genetics we call combination of destiny.

You are the only shining mutant in the world.



영우마

OUMA

Hospital

의료의 본질은 치료를 통한 감정의 치유이다. 의료는 개개인의 치료에만 집중해왔지만 어쩌면 이제는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삶으로 인식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삶의 일부이자 삶의 순환을 돌봐야만 하는 의사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의료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의료를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 발전시키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삶(사회, 세계)을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 개념은 '조셉 베이즈(Joseph Beuys)'의 사회적 조형물을 따른다.
일본에서는 전문적인 베테랑 의사들이 그들의 경력 중반쯤 자신들의 직업을 그만두어 전체적인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사들이 본인들의 일을 그만두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받는 압박이 어마어마하고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의료는 항상 발전하는 것이며 완벽하지 않다. 우리는 다양한 시도와 오류로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일본인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실수 없는' 결과만을 요구한다.
서양 국가들에서도 의료사고와 실수는 발생한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인간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믿기에 실수를 용납한다. 만약 경험 많은 의사가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유감인 일이다. 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초보 의사가 어려운 일을 맡게 된다면, 그것은 의료사고일 것이다. 또한, 의료는 꽤 기술적이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의료계 종사자들은 꽤나 차이가 있다. 의료에는 항상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한다. 인간 복제나 안락사와 같은. 예술은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오우마

2019.10.23. - 11.6.



Hospital

The essence of medical care is to heal feelings through treatment. Medical care has focused on individual treatment but it's time to think about society as whole life. We are all part of society (world) and doctors for taking care of Life Accumulations. This exhibition questions the future of the medical care.

We develop medical care for individual life but it's time to think about the whole life (society, world). This concept follows social sculpture by Joseph Beuys. There's the problem which mid-career veterinarian quit their job and total quality of medical care is getting down in veterinary field in Japan. One of the reason they can't keep working is that doctors are under a lot of pressure and they have not enough time to spend with their family.

Medical treatment is always developing and not perfect thing. We are looking for better way with try and error but Japanese people is demanding compare with other countries and we require "no mistakes". There're the concept of malpractice or mistakes in Western countries. Especially in US, they think human being make a mistake so they accept mistakes but malpractice. If experienced doctors had a mistake, that's sorry but it happens. However, if beginner doctors who have not enough skill was assigned to hard case, it's malpractice. Also, medical care is quite technical. So there's the distance between health care workers and ordinary people. Even it's very technical, there's so many new problems like human clone or euthanasia. Art should gi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about them for everybody who has different background.

Ouma

2019.10.23. – 11.6.



Treatment with sense of sight
캔버스 위 아크릴과 펜, 모래시계, 체험작업, 2019



Phylogenetic Tree
종이위에 아크릴, 2017 - (1)

치유로서의 예술

송요비

예술공간 스페이스바 / 10AAA 디렉터

“이 사회는 37조개의 세포가 하나의 인체를 만들고, 사람들이 마을을, 마을이 국가를 만드는 것처럼 ‘생명’과 유사하다. 우리는 이 사회(세계)의 일부이며 인체를 위해서 세포가 일하듯이 전세계를 위해 일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 작가 전시 설명 중

예술의 시작_죽은 동물의 초상

10월 어느 날 과거 수의사였던 오우마 작가를 홍티아트센터에서 만났다. 수의사로서 동물의 죽음 앞에서 동물과 그 보호자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에 그리고 큰 재해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자신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고��스러웠다고 했다. 작가는 죽은 동물의 드로잉을 남기는 것으로 예술 활동을 시작하며 12곳 이상의 전 세계 레지던시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업을 진행해 왔다.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절망에서 예술을 통해 다시 희망을 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관객과 함께 하고자 한 의지가 오늘의 오우마 작가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죽음에 대하여

오우마 작가의 작품은 작가가 치료했던 ‘동물’의 죽음에서 시작한다. 죽음은 그 단어만으로도 부담과 공포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작가는 죽음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식으로 죽은 동물의 초상을 남긴다. 작가는 이후 작업을 통해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다루면서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로부터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왜 죽음 앞에 공포와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삶과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인간 삶을 위협하는 것은 그 무엇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바로 이 결론 이(자연)질서였다. 심지어 이승에서까지 인간을 위협하는 이 현존은 그러나 형체가 없는 것이었다.” 즉 일상에 항상 내재한 죽음은 삶에서 불안의 요소로 함께 한다. (송혜선, 2009) 한편 프로이트는 삶에 이바지하는 본능과 <죽음>에 이바지하는 본능으로 나누면서 인간의 본능에 대해 말하였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 대립 자체가 인간에게 불안으로 작용하며 불안은 억압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억압의 주요

동기 중의 하나가 불안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다. (프로이트, 1997) 또한 죽음은 존재를 부재로 전환해 놓는다. 삶과 죽음의 상호관계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죽음을 단순히 존재와 부재의 현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둘의 관계는 결코 분리할 수 없으면서 인간의 감정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감정의 충돌로 우리는 삶과 죽음을 대립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대립이 아닌, 공존의 관계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오우마 작가의 작품을 통해 삶에 내재하는 죽음에 대해 좀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된다.

Hospital_삶 속 치유로서의 예술

홍티아트센터에서의 오우마 작가 개인전 전시의 제목은 ‘Hospital(병원)’이다. 전시장에는 병원에서 이루어질 법한 제목의 작품들을 만난다. <시각 치료/ 하루에 2번 3분씩, 2019>, <촉각치료/ 하루에 5번 1분씩, 2019>는 예술의 힘을 믿고 일상에 예술을 들었을 때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제시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치료 방식을 발견하고 그것을 작품으로 연결하고 있었다. 일방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치료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에른스트 피셔는 ‘예술’은 개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과 통합 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며, 그것은 인간의 상상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 경험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반영한다고 말한다. (에른스트 피셔, 1984) 또한 예술은 인류의 시작부터 존재하였으며 자신과 삶의 과정을 표현하고 종교, 주술행위, 의식 등 자연의 순환에 찬미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표현의 수단으로 발전하였다. 시간을 거슬러 고대부터 예술과 치료는 무의식을 표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방법으로 창작행위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같은 의미로 시작된 예술과 치료는 시대의 변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혀 다른 개별적인 분야로 인정되었다. (이근매 2010) 예술치료에서는 자율치료 능력의 활성화라는 기능이 있는데 인체에는 자기치료(self-healing) 능력이 존재한다. 미술 작품을 보면서 이러한 기능을 향상해 마음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전시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Picture with neoplasm
사진 위 아크릴, 2019

Art, Life, and Medicine

영국의 웰컴 컬렉션(Wellcome collection)이라는 재단에서는 오랜 시간 ‘Art, Life, and Medicine’이라는 주제로 전시와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죽음 사이의 모든 것이 컬렉션에 포함된다. 어찌 보면 인류학 박물관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이곳의 철학이 오우마 작가의 이번 전시와도 맞닿아 있다. 이번 〈약국, 2019〉 작품은 본인이나 주변 사람을 위해 행복해지기 위한 약을 만들어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관객이 참여 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약이라는 것은 약의 효과도 있겠지만 약을 먹었다는 의미로 ‘위안’을 주는 것도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기분’도 중요해서 누구나 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받는 행위만으로도 ‘치료’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작가는 개인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환경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외국에서 일본은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듯한데 실제 사는 사람에게는 자살률도 높고 안전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나를 치료하는 것보다 전체를 치료하려면 무엇을 치료해야 하는가 질문하였다.”(작가 인터뷰 중) 작가는 크게 사회에 대한 병은 작게 나 자신을 치료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는 작은 시도를 제시한다. 오늘날 예술과 치료를 몸과 마음의 순환 구도에 의해 움직이는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고 과학적 한계를 극복(김병현 2015)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오우마 작가의 작업은 과학적 한계를 가볍게 극복하여 자신과 내 주변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시도이다. 미술치료사 크레이머는 자신의 저서 ‘치료로서의 미술’(2007)에서 “미술을 통한 카타르시스의 경험이 방어기제의 벽을 극복하여 승화에 도달하게 하는 지름길”이며, 이것이 인간의 전체 인격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Edith Kramer, 2007)

협업_작품의 소유에 대하여

〈SORA Project(소라 프로젝트), 2019〉는 ‘하나의 생명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프로젝트이다. 일본어로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소라 프로젝트’는 16개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2000여 점의 드로잉들이 참여한 관객과 함께 제작되었다. 하나하나의 드로잉이 각자 만든 이의 작품이며 전체가 되었을 때가 작가 자신의 작품으로 여겼다. 하나하나의 드로잉들은 그 하나로 세포라 여기며 서로가 모여서 전체를 이루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 오우마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작품 생산에 참여한 모두는 저작권을 갖는다는 ‘예술 협업’에 대한 생각도 함께 이야기한다. 소라 프로젝트가 여러 사람의 작품이 모여 하나의 작품을 이루는 것이라면 〈계통수(Phylogenetic Tree), 2017〉는 오우마 작가 한 사람이 제작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구성 하나하나가 세포를 의미한다. 본 전시에 설치된 것은 부산에서 사진을 찍어 사진에 찍힌 이미지의 색을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한 작품이다. 예를 들어 자갈치 시장에서 찍은 사진일 경우 먹물의 색을 사용해서 그

장소만의 특징을 화면에 색으로 느껴지도록 하였다. 〈지속적인 삶(Life Continuous), 2019〉 설치 작품은 일본의 전통 종이와 한국의 전통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것으로 ‘Life Continuous’의 의미는 영생(Eternal Life) 아닌 삶이 세포가 증식되면서 지속하며 모여서 연결된다는 의미이다. 대전의 테미 창작 센터에서 설계했던 작업의 연장선에 있었다. 대전에는 한국 종이와 일본 종이를 나누어 전시 했지만 홍티아트센터에서는 두 종이를 하나의 설치 작품으로 만들어 전시하였다. 대전의 설치가 세포와 세포가 만나 다른 형태가 된다는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하나의 형태로 세포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들어가 앓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의 의미로 볼 수 있으며, 관객은 자유롭게 설치된 종이를 만져도 되고 구겨도 되는 작품을 만들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예술작품이다.

시대의 문제에 대응하는 예술가

“일상속에서 발견한 차별이나 편견, 혹은 아집이나 포기를 강요당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려주세요.”

— 〈편견과 홍콩에 대한 생각, 2019〉

작가는 사회 문제에 주저함 없이 대응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외부로 드러난 이유로는 소녀상 문제로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가 중지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어 더 문제가 되었던 두 작품이 있었다. SNS에서 소녀상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더 문제가 된 작품의 이야기는 묻혔다. 그 문제의 작품 중 하나는 태평양 전쟁을 승인했던 ‘쇼와 천황’의 이미지를 불로 태워 발로 짓이기는 작품이 있었다. 또 다른 하나는 가미카제 특공대를 주제로 표현하는 작품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문제가 된 작품들은 많이 있었다. 천황의 이미지를 불태웠지만, 그 작품의 의미로는 전시 중에 태어난 작가가 천왕과 이미지를 동일시하여 그것을 불태우는 행위를 한 것이었다. ‘과거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그리고 현재 일본의 정치를 보면서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인터뷰 등으로 작품 설명을 충분히 했지만 작품의 의미는 없어지고 단지 부정적인 이미지만 배포되면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작가는 생각하였다. 또한 현대미술이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리고 싶었다. 작품이 일부 알려진 잘못된 오해로 중요한 국제적 예술 행사가 취소되었을 때 주최 측이 작품의 진정한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어떠한 설명 없이 작품을 철수한다든가 하는 소극적인 대처가 너무 아쉬웠기에 이 작품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아이치 트리엔날레”처럼 실제 작품을 보지도 않았는데 취소되어 버리면 그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미 알려진 잘못된 내용과 이미지만 정보로 접하게 된다는 현실이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Life Continuous

이렇듯 오우마 작가는 사회의 문제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드리워진 죽음에 대한 불안과 아픔을 작업을 통해 관객과 대화하며 예술계에 중요한 흔적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회에서 경계를 지우려 하는 미술은 미술계 이야기만 해야 한다는 편견, 그리고 사회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미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편견을 다루었다. 또한, 삶과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간의 모습에서 시작한 작품은 현실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의, 지구의, 인류의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언젠가 이 작업에 참여한 모두가 사라져도 작품과 작가의 생각은 계속 남아 이어져 나갈 것이다. 〈Life Continuous〉라는 작품의 제목처럼.

참고 문헌

곽현주, 김영희, ‘예술치료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음악치료, 미술치료, 무용동작치료, 통합예술치료를 중심으로’, 예술심리치료연구 제9권 제3호, pp.185~203, 2013

송혜선, 죽음 혹은 부재의 예술적 형상화 연구, 상명대 개학원, pp.9-12, 2009

이근매, ‘예술심리치료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 견해’.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 제 2010권 11-23, 2010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박찬부 옮김, 『정신분석학의 근본 개념』, 열린책들, 1997, p.135.

에른스트 피셔, 김성기 옮김, 『예술이란 무엇인가』, 돌베개, 1984, p.23
EdithKramer, 『치료로서의 미술』, 시그마 프레스, 2007, p.7

<https://wellcomecollection.org/pages/Wuw2MSIAActd3Stq>, 접속 2019.12.05.



WE buy Your Death
인쇄, 2019, 상세이미지

Art as a cure

Song Yo Vi
SpaceBA / IOAAA Director

"This society is almost as same like 'life' how 27 trillion cells make one human body, men forms village, village forms a nation. We are a part of this world, like how the cell works for a human body, when we work for the world we affect one another."

—From the exhibition panel

Beginning of art_portrait of a dead body

I met artist Ouma at the Hong-ti Art Center on the day of October who was a vet back then. He said he felt painful that he could not do anything to help the animal or it's owner in front of the animal's death and when people died due to a catastrophic disaster. The artust carried on his creative work, meeting various people and traveling more than 12 residencies all around the world leaving drawing of a dead animal. Maybe artist Ouma is showing his will to show his experience of seeing hope through art inside the despair of not being able to do anything. And how that made Ouma of today.

About Death

Works of Artist Ouma starts from the death of an 'animal' he treated. Death is taken as a symbol of burden and fear just by the word itself. the artist does not recognize death as a visible phenomenon, but leaves a portrait of a dead body as a method of accepting death. In his after works the artist tried to understand the nature of life and death to look inside the inside of men by discussing the basic topic of what is death. It makes us think on why we feel fear and anxiousness confronting death, and how we should act in front of life and death.

"(Natural)order was the conclusion that death is the inevitable threat to a human life. But this was a shapeless existence that even threatened mankind in this world." So ever-existing death is an element of anxiety in life. (Song Hye-Seon, 2009) On the other hand Freud talked about men's instinct by dividing it into an instinct to furnish life, and instinct to furnish to <death>. The conflict between life and death works as an anxiety to mankind, and anxiety is not the <result> of suppression but one of the major motives of suppression is anxiety. (Freud, 1997)

Also death turns a being into absence. In between the mutual relation of life and death, how are we taking death as? Maybe we are recognizing death as just existing or non-existing phenomenon?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can never be seperated and is also a point where men's emotion conflict starts to show. With this emotion conflict we realize life and death as a conflict. But through the work of artist Ouma, we confront death inherent in our lives closely that we should not recognize this relation as an opposition, but coexisting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essential of a way for men to live like men.

Hospital_art as cure within life

The title of artist Ouma's solo exhibition in Hong-ti Art Center is 'Hospital'. In the gallery we come across art pieces entitled like something in a hospital. <visual cure/twice a day for 3minutes, 2019>, <tactile touch/five times a day for 1minute, 2019> is work that suggests that you could be cured believing art's true power and having it in our lives. An artist discovers what he can do, method of cure that gets closer to people step by step and connects it to his art work. not being treated from a doctor that has medical knowledge but to help a person directly involved to cure themselves.

Ernst Otto Fischer tells that 'art' is an indispensable method to combine individual things with overall things, and it reflects men's infinite ability to imagine, and the infinite ability of sharing experience and ideas. (Ernst Otto Fischer, 1984) Also art existed from the start of mankind and it praises cycle of nature like religion, voodoo, ritual that expresses oneself and one's process of life, as well as being developed into a way of pression necessary to daily life. Going across time, from ancient times art and cure expresses unconsciousness through a method of establishing one's identity and get a chance to self-realization. Art and cure that started as it's essential way are acknowledged as a completely individual area according to the changes of an era, development of technology. (Lee-Geun-Mae 2010) there is a function of vitalized autogeny ability in the field of art therapy, and human body has a self-healing ability. Through seeing an



Treatment with sense of touch
수술 끈, 실리콘, 체형작업, 2019 (2)

art work you can enhance this function to experience the method of curing one's illness of mind.

Art, Life, and Medicine

In a foundation called 'Wellcome collection' in England they have a collection with the topic of 'Art, Life, and Medicine' for a long time. Everything between life and death is included in this collection. In some way this philosophy that made it look like an anthropology museum is in line with artist Ouma's exhibition present. This work of 'Pharmacy, 2019' was a work to make the viewers participate to make medicine for oneself and others' happiness. A medicine itself has its effect of course but they say the 'relief' of medicine being taken has its own effect of cure. 'Feeling' is also very important, maybe anybody can make medicine? Just by the act of receiving, there could be the effect of a 'cure'. In reality, the artist thought to not only include oneself but the environment an individual is included in. "In overseas it seems they have a perception of thinking Japan is a safe country. But to a person actually living in Japan doesn't seem so and the rate of suicide is also high. I asked what to cure when you try to cure the group not just one." (during the artist interview) Artist thought an illness on society has to start from curing oneself through the big picture.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st suggests a small attempt to cure oneself. If you look at today's art and treatment as an attemp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uman and overcome the limit of science (Kim Byung Hyun 2015) that moves on the basis of mind and body's circulation, artist Ouma's work is an attempt to easily overcome the limit of science and curing the mind of myself and those around him. Art therapist Kramer said in his book, 'Art as a cure'(2007) "An experience of catharsis through art will overcome the wall of defense mechanism and is a shortcut to get to sublimation." that this is reasonable on the overall character of human and affects valuably. (Edith Kramer, 2007)

Cooperation_About the possession of an art work

'SORA Project, 2019' is a project that makes you think 'what is a single life'. 'SORA Project' which means 'sky' in Japanese was conducted in 16 countries, 2000 drawings were made with the participating audience. Each and every drawing is an art work of each creator, and it was considered to be the artist's work when the drawings were considered to be whole. Each drawing is considered to be a cell and represents our form where we become whole by gathering. Artist Ouma talks about his idea on 'Art cooperation' that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is work production have copyright through this work. If a SORA project is to form a single art piece by gathering many people's work, 'Phylogenetic Tree, 2017' is artist Ouma's single produced work. Composition of both works means it is a cell. An art work installed in this exhibition is a display using a color of image taken

in the photo taken from Busan. For example, if it is a photo taken from the Jagalchi Market, he made the characteristic of that place own ink color to be felt on the color on display. 'Life Continuous, 2019' Installation work is made of Japan's traditional paper and Korean traditional paper, meaning of 'Life Continuous' is that cells multiply and continuously gather and link up, rather than Eternal life. It was on the extensive line of work designed at the Daejeon creative center. In Daejeon they exhibited by dividing the Korean paper and Japanese paper, but in Hong-ti Art Center they exhibited one installation work by combining both papers. If the installation in Daejeon was a meaning of cell and another cell meeting and forming up a different figure, this time he gave a meaning of a cell forming up as a single figure. It also means it could be the meaning of a cell membrane that covers the cell by making art work that a person can go inside and sit, the viewer can freely touch the installed paper and is able to make an art piece that can be wrinkled to result in an organically changing art work.

An artist dealing with a problem of an era

"Please tell me about discrimination or prejudice found in daily lives, or a detailed example where you were forced to give up "
— 'Ideas on prejudice and Hong Kong, 2010'

The artist also proceeded work to react without hesitation of trouble of our time. The public reason was that Japanese "Aichi triennale exhibition" was canceled due to the problem with statue of comfort women, but in truth there were two pieces of art work that dealt with Japan's social issues. Because the problem with comfort women statue was being an issue in the SNS, the story of a display work on the spot was covered up. One of the works in question was a piece where someone burns the image of 'Hirohito' who approved the Pacific War, and steps on it. Another piece was about the Kamikaze special force. There were other pieces that became a problem. Although the image of the emperor of Japan was burnt, its meaning was to regard the artist's image the same with that of the emperor who were born during the war. 'For whom was the war for at the past?' and looking at the current Japan's politics. He tried to talk about 'For whom is the politics for?'. Although through interviews he gave sufficient explanation of his work, only negative images were distributed while the work's original meaning was gone away. An artist thought this was dangerous that wrong information was spreading. Also he wanted to show how important modern art is on showing the correct information. He said that he did this exhibition because he felt inconvenience of a passive reaction from the hosts rather than actively explaining the true nature of the work when the international art event was cancelled due to falsely known few misunderstandings of a art piece. He is pointing out it is dangerous to only get the falsely accused content

and image of a work because people couldn't see it for real when it got cancelled. Just like this 'Aichi triennale exhibition'

Life Continuous

Just like this, Artist Ouma is making important traces in the world of art by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through working on fears and anxiety of death that is constantly flowed in our lives and social problems. It talked about the prejudice of art trying to erase boundaries in society should only talk about world of art, and prejudice of not trying to admit art directly deals with social problems. Also, the work started from men's hopelessness in front of life and death is solving problem of men's, earth's, society's by directly dealing with problems from our reality. Someday everybody who participated in this work disappears, the ideas and work of the artist will still live on, just like the tile of an art work, 'Life Continuous'

References

KwakHyun joo, Kim Young Hee, 'Meta analysis on effects on art therapy: into the middle of Music therapy, art therapy, dance movement therapy, combined art therapy'. Art psychology therapy research 9, 3rd edition, pp.185~203, 2013

Song hyesun, On the Study of Artistic Configuration of Death or Absence, Sangmyeong university starting school, pp9-12, 2009

Lee-Geun Mae, 'A positive view on the effect of art psychology therapy'. Korean art psychology therapy institution symposium 2010 11-23, 2010

Sigmund Freud, Yoon ee Ki, ParkChan Boo, 'Basic concept of psychological analysis', openbooks, 1997, p.135.
Ernst Otto Fischer, Kim Sung Ki, 'What is art', Dolbaegae, 1984, p.23
Edith Kramer, 'Art as a cure', Sigma Press, 2007, p.7

<https://wellcomecollection.org/pages/Wuw2MSIAACtd3Stq>, accessed 2019.12.05

작가 약력



ARTIST'S PROFILE

이정동
Lee Jung Dong

jd9792@naver.com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 M.F.A

개인전

- 2019 <시간의 교점>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 2018 <과정의 언어> 관훈갤러리 기획, 서울, 대한민국
- 2016 <반투명한 서술/Translucent Narrative> 관훈갤러리 기획, 서울, 대한민국
- 2015 <into drawing 27 "증/층 Multiplication/Layering"> 소마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2015 <이미지와 환상> 가나인사아트센터, 서울, 대한민국
- 2015 <디지털 시대의 감성> 소민아트센터 기획, 부산, 대한민국

단체전

- 2019 <숨은 꽃>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대한민국
- 2018 <Into the Woods> baahng gallery, Asia Week New York, 미국
- 2018 <취향의 저울>전 수림문화재단, 서울, 대한민국
- 2016 <SUMMER HIGHLIGHTS> 관훈갤러리 5인전, 서울, 대한민국
- 2016 <인사이드 드로잉> 일우스페이스, 서울, 대한민국
- 2015 <무심> 소마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공모

- 2019 아트프라이즈 강남 우수작 선정
- 2014 소마미술관 드로잉 선정작가 "into drawing 27"
- 2013 39회 부산 전국미술대전 회화 조소 통합 대상
- 2013 6회 서울메트로 미술대전 회화 최우수

레지던시

- 2019 홍티아트센터(부산문화재단), 부산, 대한민국

jeongjoohee@gmail.com

고려대학교미술학부 졸업

개인전

- 2019 <Beautiful - awful>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 2018 <말하기의 다른방법 :우리를 보는 자세> 17717, 서울, 대한민국
- 2016 <싱글채널비디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대한민국
- 2016 <designeddesire> Zhemu hui art space, 항저우, 중국
- 2016 <designed desire> 스페이스 가창, 대구, 대한민국
- 2015 <읽기연습> 대안공간이포, 서울, 대한민국
- 2010 <포푸리-잡다한혼합물> 이브갤러리, 이브자리, 서울, 대한민국

단체전

- 2019 <Rainbow-Wire> F1963, 부산, 대한민국
- 2019 <SIMA FARM>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수원, 대한민국
- 2019 <숨은 꽃>, 김해 클레이 아크 미술관, 김해, 대한민국
- 2019 <AH! POPPED!> 수창청춘맨숀, 대구, 대한민국
- 2017 <청춘열전> 제부도아트파크, 경기, 대한민국
- 2017 <옴의법칙: 창원아시아미술제 특별전> 경남자유회관, 창원, 대한민국
- 2017 <뉴드로잉프로젝트> 양주시립미술관, 양주, 대한민국
- 2017 <예술생태보감>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대한민국
- 2016 <청춘본심> 성산아트홀, 창원, 대한민국
- 2015 <mayfly 6>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대한민국
- 2015 <나는 무명작가다> 아르코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 2012 <마젠티에서 고유하다> 스페이스캔, 서울, 대한민국
- 2011 <whatis this> 케이크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 2010 <Monopoly 2010> 쿤스트 페어라인, 코스펠트, 독일

레지던시

- 2019 DISKURS Berlin 선정작가, 독일
- 2019 홍티아트센터(부산문화재단) 부산, 대한민국
- 2016 가창창작스튜디오(대구문화재단), 대구, 대한민국
- 2016 중국미술학원 국가대학 과학기술(창의)원, 항저우, 중국

jdunhofen@gmail.com

B.F.A 케이프타운 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B.F.A University of Cape Town, South Africa)

개인전

- 2019 <Unfocused>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 2018 <Re- acclimate> 그라운드 아트 카페,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5 <Interlinked dialogues: Myopia> 사루비아 다방, 서울, 대한민국

단체전

- 2019 <Rainbow-Wire> F1963, 부산, 대한민국
- 2019 <김해 비엔날레> 김해시 문화체육관, 대한민국
- 2018 <Transitions> 그라운드 아트 카페,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8 <Unsettled> 아브사 갤러리,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 2016 직지코리아 주제전시: <직지, 금빛 씨앗> 청주 예술의전당, 청주, 대한민국
- 2016 <도큐먼트 10년의 흔적> 청주 시립미술관, 청주, 대한민국

공모

- 2018 클라인카루 전국 미술제(KKNK) 전국 최우수 시각예술 공헌상 후보,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지던시

- 2019 팔복예술공장, 전주, 대한민국
- 2019 홍티아트센터(부산문화재단) 부산, 대한민국
- 2017 YARD 레지던시, Erf 81 커뮤니티,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공화국
- 2015-2016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대한민국
- 2014 대전 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대한민국

bbackdragon@naver.com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박사수로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석사졸업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19 <심심을 다하여>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2015 <반응展> 유진화랑, 부산, 대한민국

2013 <살인-놀이展> 용스튜디오, 부산, 대한민국

단체전

2019 <Rainbow-Wire> F1963, 부산, 대한민국

2019 <숨은 꽃>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대한민국

2019 <부산, 그때도 지금도 있었다> F1963, 부산, 대한민국

2019 <Infinity fsmll 사이언스 월든 과학, 예술 융합프로젝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대한민국

2019 <VAPOR HOUSE 원도심 프로젝트> 부산동 외국인 관광특구 일대, 동두천, 대한민국

2019 <사이언스월든 과학예술레지던스 성과보고전> 울산과학기술원 과일집, 울산, 대한민국

2018 <Vapor House(새는 빛)> 곡식창고, 세종, 대한민국

2018 <프로젝트그린 '녹색호흡' 대안공간소나무, 안산, 대한민국

2018 <녹색게릴라 봄 워크숍> 대안공간소나무, 안산, 대한민국

2017 <아트비빔 프로젝트 인 인도네시아> 템비, 족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16 <Bitteswrrt> Art Mora, 뉴욕, 미국

2016 <Cutting Edge 100> 평창동 가나아트센터, 서울, 대한민국

2016 <야투국제 자연미술 레지던스 "접점" 성과보고전> 연미산 자연미술공원, 공주, 대한민국

2016 <황금두꺼비 여행사 원도심 프로젝트> 천안명동거리, 천안, 대한민국

2016 <글로벌 노마딕 자연미술프로젝트> 야투, 태안, 대한민국

2015 <바다미술제 "보다-바다와 씨앗"> 다대포해수욕장, 부산, 대한민국

레지던시

2019 홍티아트센터(부산문화재단) 부산, 대한민국

2019 사이언스 월든 과학예술레지던스, UNIST, 울산, 대한민국

2016 야투국제자연레지던시참가, 야투자연미술협회, 공주, 대한민국

toho486@gmail.com

골드스미스 대학교 졸업(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BA graduated)

개인전

2019 <흔들의자 올바르게 타는 방법>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2018 <조약조약> 스페이스 닷, 부산, 대한민국

2016 <비생물적 유기체>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2015 <멍> 해운아트갤러리, 부산, 대한민국

단체전

2019 <Rainbow-Wire> F1963, 부산, 대한민국

2019 <숨은 꽃> 클레이아크 미술관김해미술관, 김해, 대한민국

2019 <부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F1963, 부산, 대한민국

2019 <Artists in Residence> 규슈 게이분칸, 후쿠오카, 일본

2018 <아트마이닝> DDP, 서울, 대한민국

2016 <Alone together> 김해 문화의 전당, 김해, 대한민국

2016 <Primitive> 더트리니티, 나락실 갤러리, 서울, 대한민국

2015 <해체둔병> (구)백제병원, 부산, 대한민국

2014 <부산 미술제> 부산문화회관, 부산, 대한민국

2013 <Chain Re:action> Menier Gallery, 런던, 영국
외 다수

레지던시

2019 홍티아트센터(부산문화재단) 부산, 대한민국

2016 외동 창작 스튜디오 2기, 김해, 대한민국

oumavet@gmail.com

아자부 대학 수의학사, 도쿄, 일본

개인전

- 2019 <Hospital>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 2018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 연구>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대한민국
- 2018 <무한순환> IINNOO 갤러리, 상하이, 중국
- 2018 <지속되는 삶> 스와치 그룹 니콜라스 G 하이에크 센터, 도쿄, 일본
- 2018 <길 아래 - 지속되는 삶>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대한민국
- 2017 <세계 IV> 셀라키우스 미술관 알렉산더 캐슬, 핀란드
- 2016 <열등한 낙원> 우낙 도쿄 갤러리, 일본
- 2016 <그녀의 편지에는 '네'뿐> 아트 리그 갤러리,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외 다수

단체전

- 2019 <Rainbow-Wire> F1963, 부산, 대한민국
- 2019 <숨은 꽃>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대한민국
- 2018 <네오-로컬리즘2018> 창원 컨벤션센터, 창원, 대한민국
- 2018 <성장> 아트 레이버 갤러리, 중국
- 2018 <와카바러스터 그룹 일본 청년작가전> 남정미술관, 청두, 중국
- 2018 <Art-Lab> Shun Art Gallery, 상하이, 중국
- 2016 <니가타 오피스 아트 스트리트 2016> 니가타, 일본
외 다수

공모

- 2016 니가타 현청 미술 거리전 입선, 일본
- 2016 도쿄노마 공모전 5위, 일본
- 2016 알트슐레여행비 지원 대상선정, 독일 호엔슈타인
외 다수

레지던시

- 2019 홍티아트센터(부산문화재단) 부산, 대한민국
- 2019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 대한민국
- 2019 MoKS, 무스테, 에스토니아
- 2018 모하창작스튜디오, 울산, 대한민국
- 2018 ACCR - 오디세이 레지던시, 프랑스
- 2018 대니시 아트 워크숍, 코펜하겐, 덴마크
외 다수

pia.d.handz@gmail.com

교토조형예술대학 대학원 석사 졸업 (예술 표현 전공 종합 조형 - 현대미술 코스)
오테마에 대학 미디어 예술학부 졸업 (서양화 전공)

개인전

- 2019 <피난 온 언어 Displaced Language> 홍티아트센터, 부산, 대한민국
- 2018 <다시대화 多詩對話> 평화문화진지, 서울, 대한민국
- 2015 <글자상생 文字相生> Platform12, 서울, 대한민국

단체전

- 2019 <Rainbow-Wire> F1963, 부산, 대한민국
- 2019 <숨은 꽃>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김해, 대한민국
- 2017 <Beyond Freedom exhibition> Cattle Depot Artist Village, 홍콩
- 2014 <POLITICS NARCISSISM exhibition> Art zone kyoto, 교토, 일본
- 2013 <SNIFF OUT 2013 ART FESTIVAL> 출전, Index Osaka, 오사카, 일본
- 2012 <ULTRA AWARD COLOSSEUM> Galeria Aube, 교토, 일본

레지던시

- 2019 홍티아트센터(부산문화재단) 부산, 대한민국
- 2017-2019 평화문화진지 서울, 대한민국

2019 홍티아트센터 작가자료집

발행처

(재)부산문화재단

발행인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동수

발행일

2019. 12.

기획

부산문화재단 문화공간팀

© 부산문화재단, 2019

이 책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부산문화재단에 있습니다.

도판과 텍스트를 사용하시려면 저작권자의 사용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티아트센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산로106번길 6 홍티아트센터

T. 051 - 263 - 8661~3

F. 051 -263 -8660

H. www.bscf.or.kr

FB. www.facebook.com/hongtiartcenter

I. @hongtiartcenter

2019 Hong-ti Art Center Artist Works

Hosted by

Busan Cultural Foundation

Director

Kang Dong Su

Publishing Date

December 2019

Curator

Cultural Interspace Team

© Busan Cultural Foundation, 2019

Copyright in the drawing and the text in belongs to respective Busan Cultural Foundation.

Anyone who wishes to use such drawing or text must obtain permission.

Hong-ti Art Center

6, Dasan-ro 106beon-gil, Saha-gu, Busan, Korea

ZIP 49489

T. +82-51-263-8661~3 F.+82-51-263-8660

H. www.bscf.or.kr

FB. www.facebook.com/hongtiartcenter

I. @hongtiartcenter